

현장

찾아가는 현장
축제 한마당
앞서가는 사람들
LOFA 서비스

경기도 여주군
부산광역시 '부산자갈치축제'
장용성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에너지관리팀장
광주광역시의 행정종합배상 공제제도

지방자치 꽃 피우는 그들을 만나다!



현장 섹션은 더 나은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코너. 지방자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그들을 만난다. 이번 호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공유재산 유상보상 세입발굴 성공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도 여주군과 더불어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례로 행안부장관상을 받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장용성 에너지관리팀장을 만났다. ‘축제 한마당’에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광역시 자갈치시장 일대에서 개최되는 ‘부산자갈치축제’를, ‘LOFA 서비스’에서는 ‘광주광역시의 행정종합배상 공제제도’를 소개 한다.



경기도 여주군 시 승격으로 '남한강의 비상' 꿈꾸다!

자료 · 여주군

- 경기도 동남쪽에 위치한 여주. 동쪽으로 강원도 원주시, 서쪽은 이천시와 광주시, 남쪽은 충북 음성군과 충주시, 북쪽은 양평군과 접하고 있다. 예로부터 여주는 '영릉' (英陵), 천년사찰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 국보와 보물, 사적지 등 83점의 경기도 내 최다 문화재와 보물을 간직한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이다.

여주의 장점 중 또 하나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면서도 이곳처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도 드물다는 점이다. 강을 끼고 아름다운 수변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자전거 길, 넓고 무료로 개방된 캠핑장,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교통 접근성 또한 여주만큼 편리하게 갖춰진 곳이 없다.

얼마 전부터 전 국민 사이에서 '힐링' 이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힐링을 위해 떠난 여행이 시간과 비용이라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킬링' 이 된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고. 그러나 여주는 시간과 돈 모두를 아끼면서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최적의 장소다.

체계적인 법률해석으로 75억 원 세입 확보

- 여주군은 작년 연말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12 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사례발표 대

- 재정자립도 38.2%. 전국 군 지역에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여건이 우수한 지자체. 안전행정부 주관 재정분석에서 776.16점으로 경기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한 곳. 여기에 더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정책에 적극 동참해 지방재정 균형집행에서 최우수단체에 이어 올 3월 평가 최우수, 6월말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된 곳. 재정운용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을 찾았다.



▼ 여주군에서 운영중인 북카페 솔마루



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대회에서 여주군은 ‘공유재산 유상보상 세입발굴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남한강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유원지 등 여주군 소유 토지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했다. 여주군은 체계적인 법률 해석으로 75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입을 확보했다. 이는 1년 이 넘는 긴 시간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였다.

여주군측은 “군민이 주는 예산을 자기 돈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서 더욱 값지게 쓰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예산효율화가 지자체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물샐 틈 없는 재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5억 원이라는 세입은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남한강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여주군 소유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 이외의 전·답·유원지 등 토지 11필지 4만 2,396제곱미터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개인으로부터 토

지를 매입하고 군민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유원지를 무상 편입한다는 것은 법 규정에도 없는 것이며,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오랜 기간 관계기관을 설득한 결과 만들어낸 성과였다.

여주시로 승격... 교육 경쟁력 업그레이드에 총력

- 여주군은 오는 9월 23일 여주시로 승격

한다. 1469년 예종 원년, 세종대왕의 능침이 헌인릉에서 여주로 천장(이장)하면서 여주는 여홍도호부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市)에 해당하는 여주목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895년 고종 32년 여주목은 여주군으로 강등되면서 충주부의 속군으로 재편되었다.

이번 여주시 승격은 이러한 역사 선상에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다. 오는 9월 23일은 여주목에서 여주군으로 강등된 지 118년 만에 여주가 다시 그 영광을 되찾는 날. 군정 슬로건인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 발이 될 것으로 여주군측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0일 여주시 승격 공청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일 행정안전부 여주시 설치 건의, 올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여주시 설치 법안의결을 거쳐 지난 5월 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여주시 설치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부군수을 단장으로 ‘시 설치 준비단’을 구성해 조직개편, 정원조정, 청사(군청, 동사무소, 읍사무소) 리모델링,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정리, 사무·재산인수인계 등 시 승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여주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시 승격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어 많은 준비를 해야했다고. 특히 시 승격으로 가장 우려했던 분야가 바로 교육. 그렇지 않아도 여주가 학업성취도 등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시가 되면 3년 후부터는 농어촌특례마저 사라지게 돼 더욱 교육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군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1,500명의 의견수렴과 교육 관련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지난 2월 여주군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사업을 시작했다. 시 설치로 특례입학 혜택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3년 간 유지되는 기간을 적극 활용해 낙후된 교육환경과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명문학교 육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5년 간 매년 30억 원씩 150억 원의 교육비도 투자된다.

여주시 통합 브랜드 개발 마무리 단계

- 현재 여주시는 통합 브랜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여주시 통합 브랜드 개발사업은 여주가 기존 농촌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농 복합 도시’라는 변화에 맞춰 새로운 얼굴로 새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계획되었다고.

얼마 전 완성한 여주시의 통합 브랜드는 개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전공 대학교

수들과 한국디자인개발원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개발 초기부터 사업 방향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주민 공청회와 설문지 배부,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여주시의 새 얼굴을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여주시 새 통합 브랜드의 상징 마크는 남한강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래의 형상으로, 더 넓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여주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슬로건인 ‘남한강의 비상’은 여주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산업을 넓은 근원이자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남한강을 여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삼았다. 유유히 흐르던 남한강이 높이 날아오른다는 의미를 통해 발전하는 도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서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이번에 확정된 상징 마크와 슬로건은 기본 디자인으로 향후 농·특산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여주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군민에게 친절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군민 위한 적극행정’을 군정방침 중 하나로 정하고, 여주군 10개 읍면의 주민들을 연초 군수가 직접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 여주군보다 더 일 잘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부서가 있으면 벤치마킹



▲ 맑고 화창한 여주군 전경

해서 여주군에 과감히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두 번 방문 없는 끝장 민원 상담제’와 ‘민원현장 상담제’도 실시중이다. 매 월 월례조회마다 전문강사를 초청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

그밖에도 여주군측은 군에서 시가 되면 지금

의 읍 지역은 도시로, 나머지 지역은 농촌으로 이분화되고 경제력이 도심으로 쏠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야한다고. 또한 농촌이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만하는 1차 산업의 생산기지만이 아니라



▲ 여주시 새 통합 브랜드의 상징 마크

2차·3차 산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26개 농촌체험마을과 문화유적지·이포보·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

울렛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한데 묶는 토요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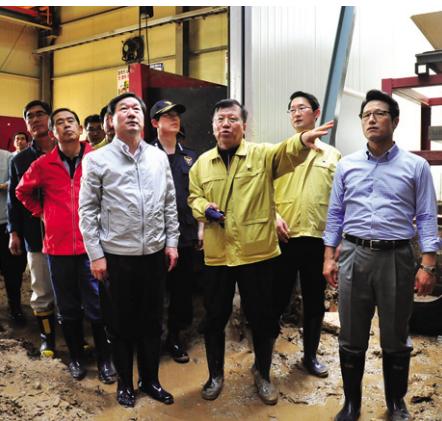


Interview



**'투명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싶어**

김춘석 여주군수



▲ 이번 여름 물난리를 겪은 수해현장을 살피고 있는 인천행정부 장관과 김춘석 군수

여주군수로 취임하신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 정말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여주가 4대강 사업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여주에만 남한강을 따라 3개 보가 설치되면서 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기고, 야구장과 오토캠핑장 등 레저·스포츠 시설과 자전거 길이 조성되면서 웰빙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어요. 여기에 9월 23일 여주가 시로 승격하면서 3년간의 성과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시 승격이라는 목표달성을 과정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갈등으로 끝없이 이어졌다면 아마 지금의 성과들은 남의 집 잔치가 됐을 거예요.

현재 여주 변화의 핵심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적극적인 지원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주는 여전히 희망적이고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 여주 시내버스 개편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올초 시행한 이 사업은, 처음엔 여론의 뜻매를 많이 맞았죠. 각 마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게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불편사항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했어요. 그동안 버스가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에서 운행을 개시하고, 하루에 한번 들어오던 버스를 세 번씩 들어가게 하고난 지금은 원성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이번 버스노선 개편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주민 밀착형 행정정책을 세워야함을 마음 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 승격을 앞두고 그 준비에 힘쏟고 있는 걸로 압니다.

- 9월 23일은 여주시 승격의 날인 동시에 ‘제1회 여주시민의 날’이 기도 합니다. 예종실록에 따르면 544년 전 9월 23일은 여주가 영흥 도호부에서 목으로 승격하면서 ‘여주’라는 지명으로 개명된 바로 그날이에요. 품격있는 문화공연으로 시 승격과 여주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온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하 퍼레이드와 다양한 공연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이날의 메인 이벤트로 9월 23일 생일을 맞이하는 여주 주민들을 무대로 초청해 케이크 커팅 등 생일축하파티를 하면서 여주시 승격을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 여주군 농산물 홍보에 힘쏟고 있는 김춘석 군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인 걸로 아는데요.

- 현재 수립중인 ‘비전 2025’는 여주의 궁극적인 꿈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큰 목표로 삼고, 그에 맞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담을 겁니다. 또한 기존 중장기 계획처럼 뜬구름 잡는 허황된 게 아니라, 매년 연간 예산액을 예상하고 그 예산액과 맞물려 가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 향후 12년간 여주시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하려고 해요. ‘비전 2025’가 수립되면 주민들도 여주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여주군 홈페이지에 공약이행계획, 공약이행상황,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 간단히 말하면 “투명하자”는 거예요.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잘못됐다고 계속 숨기다 보면 더 큰 화를 초래하죠. 잘못된 부분은 당당히 군민들로부터 질책받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의미에서 투명행정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업적을 쌓기 위한 전시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민선군수로서 표를 생각할 때 욕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사업이 많아요. 하지만 10여 년간 국가 예산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에 비추어 무리하게 재정을 운용했을 경우 모든 공과가 부메랑이 되어 여주군민들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이상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작지만 정말로 여주군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 투자대비 효과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재정을 운용해 왔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운용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여주가 여주목에서 여주군으로 강등된 지 118년 만인 오는 9월 23일 역사적인 ‘도농복합 여주시’로 승격됩니다. 여주는 1,5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으로,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수도권의 유일한 청정지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여주시 출범은 우리 지역의 이러한 장점을 이 시대 주요 화두인 ‘웰빙’을 접목한 문화와 관광, 휴양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변화의 큰 시험대에 오른 지금. 다른 어느 때 보다도 11만 여주 군민의 지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또한 주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온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료 •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제 22회 부산자갈치축제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기간 2013년 10월 10일(목) ~ 10월 13일(일) 4일간 장소 부산자갈치시장 일대

● 매년 10월이면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를 외치는 자갈치 아지매들의 정겨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풍성하고 다양한 불거리, 먹거리, 살거리 행사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 최대의 수산물 축제 한마당인 ‘부산자갈치축제’. 부산의 상징이며 부산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인 자갈치축제에서 신선하고 특색있는 수산문화와 오직 이곳의 이색적인 거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추억과 낭만의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특히 올해는 부산 자갈치축제가 태동한 지 21년이 되는 해. 인간으로 본다면 성인이 되는 뜻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왕성한 짙음을 새롭게 펼칠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 하겠다. 축제의 전야제에서는 용신제와 물고기위령제로 전통 제의 의식과 물고기 넋을 달래주고, 이어서 푸짐한 전어회무침과 막걸리로 ‘얼씨구 좋다’ 신명나는 한판 ‘뒤풀이’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축제의 여는 마당을 준비한다. 길놀이는 용두산공원에서 근대역사관 중앙로 광복로를 거쳐 축제장까지로 이어진다. 자갈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하는 자갈치의 미래모습을 재현하는 한편, 테마별 페스티벌인 △자갈치, △자갈치의 태동, △희망찬가! 자갈치, △부산의 중심 중구의 4개 테마로 구성하였다. 또한 수산물의 상징인 용신을 비롯한 조형물을 참가 시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길놀이가 될 것이다. ☺

행사 프로그램 안내



여는 마당

용신제, 물고기 위령제, 소망등 점등식, 한마당 뒤풀이, 길놀이, 개막식, 불꽃쇼

오이소 마당

수산물 깜짝경매, 도전! 세계최대 회비빔밥 만들기, 나도 자갈치 아지매, 자갈치 달인 2종 경기, 자갈치시장 길따라 스텁프랠리, 수산물요리 경연대회

보이소 마당

실버예술공연단, 자갈치 7080 콘서트, 전국동아리 경연대회

사이소 마당

자갈치 키즈랜드, 생선회 맛 천국, 자갈치 맛자랑, 자갈치 체험한마당

벼려진 땅에서 에너지 자원 만들어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신화가 무너진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요즘 '탈핵'과 더불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광주광역시 송치동 산수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시간당 2MW 규모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유수지를 에너지 생산에 활용해 많은 자치단체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훌륭한 선례를 보여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생태과의 장용성 에너지관리팀장을 만났다.

장 용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에너지관리팀장

자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 예전에 에너지관리팀은 말 그대로 석유, 가스, 연탄, 에너지일반 업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큰 거 하나가 더 생겼죠. 신재생에너지가 추가되었네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7~8년 전부터 지방보급사업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근무하는 광산구청은 '탈핵-에너지 전환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더군요.

- 작년 연말 열렸던 발표대회에서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례를 발표했어요.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다는 내용을 담았죠.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외수업의 하나로 연간 약 3,200만 원의 임대수입을 거두는 효과가 있어요. 20년 후에 우리 구로 무상 기부채납되면 이로 인해 5년간 약 12억 원의 세외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송치동 산수배수펌프장 유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함으로써 한 해 평균 1,134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원유 수입은 연간 551톤을 줄였어요. 소나무를 약 41만 그루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물을 가두어두는 땅 위에 건립한다는 발상이 독특합니다.

- 예전엔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면서 농지나 산림을 많이 훼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배수펌프장은 아시다시피 흙수에 대비한 방재시설입니다. 여기에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이용가치를 높인 겁니다. 유수지는 벼려진 땅과 비슷해요. 게다가 항상 물이 고여있어서 발전 효율이 높죠. 태양광 발전은 온도가 올라가면 효율이 떨어지기에, 한여름에도 고인물로 인해 주변온도가 내려감으로써 효율이 좋은 편이에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저탄소 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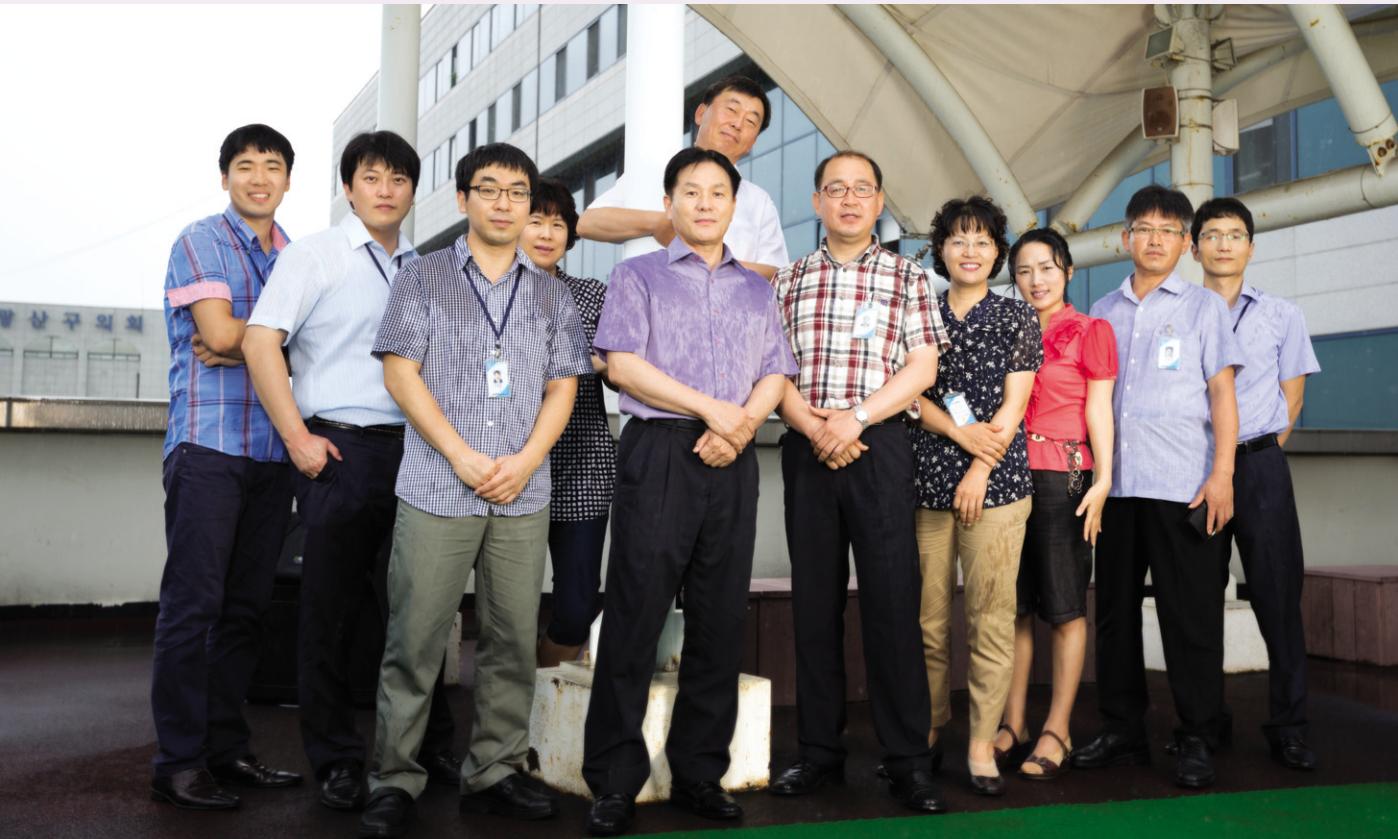


도시 조성의 '시범도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에 2010년 핵심 추진 과제로 배수펌프장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사업을 선택했어요. 당시 제안공모를 통해 지역 태양광전문기업인 도시환경ENG가 선정되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거액의 사업비가 들어가 무리가 있었죠. 결국 대기업인 한화에서 약 63억 원의 자본을 투자해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도시환경ENG는 한화와 같이 시공했다는 점에서 그해 전년대비 3배 정도 매출이 뛰었는데, 올해는 아마 5배 정도 상승하리라 봐요. 한화 역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첨단기술력이 널리 홍보되어 회사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더군요.

설치과정은 어땠는지요.

- 산수배수펌프장에 있는 유수지 전체 넓이가 5만 6,000제곱미터 정도 되요. 여기에 태양광을 위한 전기 모듈 6,840장을 깔았어요. 이 과정에서 배수펌프장 설치 목적과 기능유지에 지장 없이 설치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유수지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부유물이 많이 들어와서 펌프장 앞 스크린과 태양광 모듈 지주에 협잡물이 막히면 펌프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요. 부유물을 수거하기 위한 작업통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주에 쌓인 협잡물은 사업자가 제거반을 구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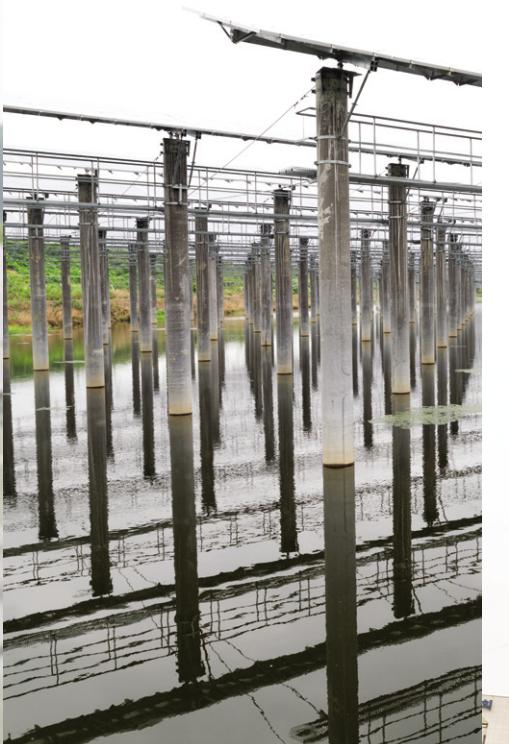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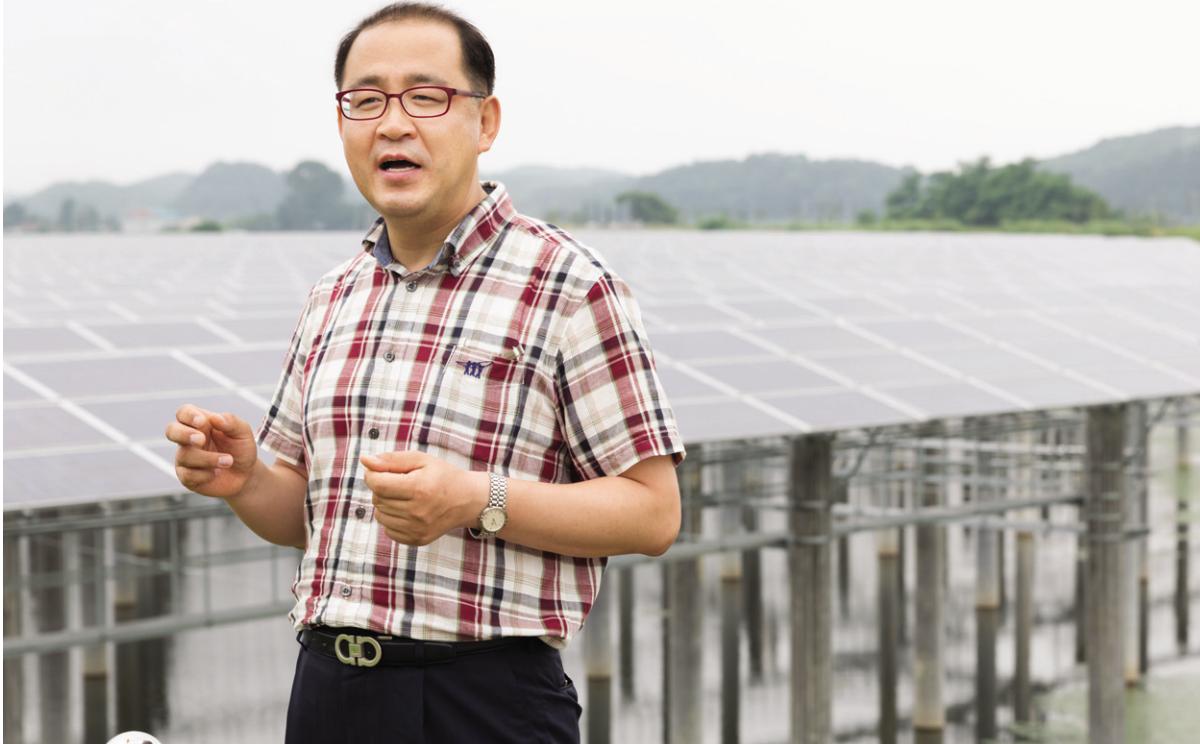
● 장용성 팀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에너지관리팀 직원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협잡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점검 통로와 CCTV도 설치했어요.

현재 가동중인 산수배수펌프장에서의 운영결과는 어떤가요?

- 지금 현재 산수배수펌프장에 세워진 태양광 발전소에서 연간 2,8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는 680만 가구가 일년 동

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억 원 정도 되요. 원래 산수배수펌프장에 이어서 송정배수펌프장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도심권에 있어 공시지가가 높아요. 대부분을 지불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빈 공간으로 방치된 공공건물 옥상에 시민이 투자한 시민발전소를 건립하고 싶어요. 공공기관 옥상의 빈 공간을 태양광발전소 모듈로 가득 채워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수지의 문제점이 바로 대두되었어요. 바닥이 빨로 되어 있어서 작업인부와 장비가 들어가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암반층이 나올 때까지 빨과 모래를 모두 다 거둬냈죠.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규모도 크게 늘었어요.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치구 재정의 특성 상 예산 지원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

해선 도시계획 중복결정도 받아야 했어요. 이 때 전문기업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불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이들 중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지요.

- 공직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네요. 광산구청에만 근무했어요. 돌아보니 옆으로 결눈질 할 틈 없이 정신없이 지내왔네요. 지금까지 추진한 일들 중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애착이 가장 많아요.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

과 공공기관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시스템을 보급한 게 보람있었어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통해서 구청사의 고효율 보일러와 LED 조명등 교체사업을 추진해 에너지비용을 줄인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환경부 주관사업으로 저탄소 녹색마



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요.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관내 삼도동 쌍내·망월·우치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농지축산농가 2곳의 축분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자원화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시설이 올해 말쯤 완공되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해요. 농장 앞 들녘엔 경관작물(해바라기, 자운영, 청보리, 유채꽃 등)을 심어 볼거리도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자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행정종합배상 공제제도’ 행정서비스 신뢰와 효율성 높이다!



- 행정종합배상 공제제도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시민인권을 보장하고 행정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올해부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종합 배상공제사업’을 실시중인데, 광주광역시가 지난 4월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 사업에 가입했다.

- 공무수행이나 착오 등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종합배상 공제제도’. 광주광역시가 지난 4월부터 국내 광역자치단체들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여권이나 통합민원 업무에 한정해 배상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확대 시행한 것. 일부 업무에서 행정업무 전체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본청과 사업소 전체 직원 3,120명이 가입되었다. 이전에는 시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광주광역시측은 “시민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2중 고통을 겪어 행정불신을 낳을 수 있다”면서 “시민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행복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절차는 공무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실·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부)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손해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결정하게 된다.

배상대상은 광주광역시 업무를 추진하다가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단체. 보상한도액은 청구 1건당 1억 원. 연간 총 배상한도액은 10억 원까지 제3자 배상책임(한국지방재정공제회)을 통해 보상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분야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측은 시민고충 등 피해 발생으로 생기는 소송,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적 업무까지 대리해줘 처리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인 부

담과 책임위험을 공제제도가 책임지기에 광주광역시 직원들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ini Interview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펼칠 수 있어”



장 학 기

광주광역시 안전행정국 회계과장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중앙부처에서 20년간 지방행정 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경험에 비추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죠.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답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펼쳐야 하잖아요. 평소 강운태 시장님의 강조하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건설’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주가 선도적으로 해보자고 결단을 내렸죠.

사업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현재 광주광역시 본청과 사업소 전체 직원 3,120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원래 ‘여권’이나 ‘민원통합’ 업무에 한정하던 것을 지난 4월부터 행정업무 전체로 확대시켰죠.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보상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에요.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건 적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반응이 나타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합니다. 제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조언해줄 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도입 결과에 대해 구청이나 의회, 경찰청, 타 시·도 등에서 많이 연락오고 있어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행정수행이 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두루두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